

나주시,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 경쟁력 키운다

포장재·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 24일까지 구비서류 제출·접수

나주시가 브랜드·마케팅, 포장재 제작·디자인 지원 등 관내 농식품가공업체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공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농식품가공분야 자체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우리 농산물 농식품가공활성화 지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참여 업체를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는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가공품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네이밍·BI·캐릭터), 마케팅(광고·행사·문화체험·홍보물 제작), 네트워크(홈페이지·쇼핑몰 입점) 분야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 영업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 10개소로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농산물 구입실적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가공업체 5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장재 제작, 포장재 디자인 개발, 소규모 기계장비 구입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먹거리계획과)를 방문,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활성화를 위해 브랜드·마케팅, 포장재 제작·디자인 지원 등 농식품가공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 나주시 제공

신청 접수자 중 관내 농산물 구입실적과 인증 내역 등을 평가해 4월 중 사업별 선정 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청 누리집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농식품가공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마케팅, 네트워크 등 분야별 적격 업체 선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텃밭체험농장 160구획 무료 분양 장성군,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장성군이 영농체제를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텃밭체험농장’을 군민에게 1년 간 무료로 제공한다.

장성군은 장성읍 영전주공아파트 인근에 조성한 텃밭 160구획을 선착순 무료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장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구획 면적은 9㎡(2.7평)다. 텃밭 체험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4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유롭게 텃밭을 가꿀 수 있다.

텃밭체험농장 분양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1-390-8441)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고교생 안전 귀가 교통 지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새학기 출발과 함께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귀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교 야간 자율학습 귀가 지원 사업’은 학교와 2km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이 귀가 교통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야간 귀가 지원 대상자는 매년 각 학기 시작 전 3월과 8월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된다.

지난해 곡성고 397명, 육과고 540명 총 937명 청소년들에게 귀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는 곡성고 6명, 육과고 19명 총 25명이 신청했다.

귀가 차량은 총 5대(곡성 2대·육과 3대)가 지원된다. 곡성권역은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육과권역은 육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화순군이 20일 농주면 남정리 일대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구북구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과 군의원, 군의회 직원, 화순소방서 직원, 임업인,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농주면 남정리 임야 1.5ha에 동백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화순군 제공

전남농기원, 청년농 대상 작목별 순회 간담회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종재)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도내 15개 시군 35개 소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안·신안곡성에서 스마트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안정 영농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작목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창업 과제로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의 확대 지원 △작목별 재배·경영·마케팅 기술 컨설팅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15개 시군 35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간담회에 참여한 곡성군 입면 로와농장 이현(28) 대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스마트온실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꿈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박용철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2026년까지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각각 100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출량 감소

와 쓰레기 보관으로 인한 침출수 누출 및 악취 예방 효과가 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둔 일반가정 또는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세대당 1대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용의 70%(최대 가정 50만 원, 사업장 600만 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

다. 오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과 자원순환팀(061-379-3604)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고 설치 완료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원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금연클리닉 1:1맞춤 금연 상담 등 화순군 보건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사와 1:1 맞춤형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니코틴껌·니코틴사탕)와 행동강화물품(사탕·자일리톨껌·가르린·비타민C) 지급 △흡연 욕구 대처법과 금연 정보 제공 △3개월·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체중계·자동혈압계) 지급 등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금연클리닉 등록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금연을 희망하나 시간과 거리 제약 등으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못하는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실(061-379-5339)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공감소통가족학교’ 운영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도내 19개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공감소통 가족학교’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감소통가족학교는 2020년 도민,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2021년부터 지역 사회 확산을 위해 가족 관련 서비스 담당 종사자(18개 센터·393명)를 대상으로 각 센터별 찾아가는 교육이 실시됐다. 올해는 19개 가족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한국 사회와 가족의 변화 △전남 1인가구 현황과 가족서비스 수요 △전남 가족센터 1인가구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전남의 인구·가구 통계 및 서비스 사례를 반영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는 각 시·군 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 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상담사관리사 역량 강화·소모임 조직, 전남형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사업 협업 등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번 교육은 가족센터와 상호협력 첫걸음이며 가족들이 성평등, 상호 존중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며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